

# KOCHAM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  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5년 8월 4일(화)

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두달새 12개국 금리인하, 달러강세 가속
- 2) 오바마,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

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중국, 자동차 시장 17년 만에 위축, 내수중심 성장도 '경고등'
- 2) 호주 중앙은행, 기준금리 2% 동결

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제약사 Shire, 박스엘타에 35조원 인수가 제시
- 2) 일본 토요타, 엔저로 2Q 순익 사상최대

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### 1) 두달새 12개국 금리인하, 달러강세 가속

-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6월에 이어 7월에도 지속
  -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에 통화 완화정책이 지속되며 정책금리는 이미 낮아졌지만 다른 정책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계속 매달리는 모습
- 반면, 미국이 연내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미 일부 신흥국에서는 자금 유출의 가속화 등 불안이 가시화
- 각국의 금리가 낮아지며 달러화 대비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도 추락세
- 6개 주요 배스킷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지난해 5월 78.891로 저점을 찍고 급속도로 상승, 올해 3월 100을 넘김
- 22개 주요 원자재 값의 추이를 보여주는 블룸버그 원자재지수는 이달 7.3% 하락, 지난달 23일에는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
- 한편, 원자재 가격 하락은 디플레이션 공포를 불러와 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의 금리 인하를 부추기기도 함

### 2) 오바마,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

- 지난 3일 오바마 대통령은 석탄 화력발전소들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의 배출 감축량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‘청정전력 계획’ (Clean Power Plan)을 발표

-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05년 배출량 대비 32%로 상승시키며,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22%에서 28%로 상향 조정
- ‘탄소배출권 거래제도’가 도입되어 탄소 배출 한도를 채운 미국의 각 주와 남긴 주가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, 미국의 각 주 정부는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해 오는 2016년 9월까지 미국 환경보호청(EPA)에 제출해야하는 상황
- o EPA는 청정전력계획으로 미국이 2030년까지 최대 540억달러(약 63조 3000억원)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분석
- 경제적 혜택이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질병을 앓거나 조기 사망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감소하는데 따른 효과
- o 한편, 청정전력계획은 기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, 일자리를 줄인다는 이유로 법적·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

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### 1) 중국, 자동차 시장 17년 만에 위축, 내수중심 성장도 ‘경고등’

- o 지난 3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자동차시장 규모가 17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으로 내수중심의 새로운 성장 전략마저 ‘옐로카드’를 받아 추가적 경기부양책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

- 미국의 포드는 최근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중국시장 판매대수가 올해 2300만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
- o 전문가들은 중국 자동차시장은 중국의 성장률과 유사한 감속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 지도부의 추가적 부양책 없이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 할 수 없다고 의견 제시
- o 한편, 중국 지도부의 하반기 추가 부양 관측은 세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며 전문가들은 하반기 성장 안정화의 열쇠로 재정 정책을 보고 있으며 중국 지도부로부터 추가 재정 부양 신호가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분석

## 2) 호주 중앙은행, 기준금리 2% 동결

- o 지난 4일 호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2%로 동결
  - 이는 시장 예상치와 같으며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 2월과 5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음
- o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금리동결 결정이 시드니의 주택가격이 치솟고 있는 데 대한 경계감 속에 호주달러의 약세가 자국 수출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지적
- o 뱅크오브아메리카 호주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기에는 장애물이 매우 높으며 환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
- o 한편, 달러 대비 호주달러 가치는 최근 1호주달러당 73센트 선에 머물러 있음
  - 이는 2011년 정점에 비하면 35%가량 하락한 수치

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### 1) 제약사 Shire, 박스엘타에 35조원 인수가 제시

- 지난 4일 다국적 제약업체 샐리어 파마슈티컬스가 경쟁사 박스엘타(Baxalta)에 대한 적대적 인수에 착수
  - 3일 박스엘타 주가에서 36% 프리미엄이 붙은 주당 45.23달러의 인수안을 제시
- 이번 인수는 박스엘타가 지난달 1일 박스터인터내셔널로부터 분사한 뒤 불과 한달 만에 제기
  - 박스엘타는 출혈성 질환, 면역결핍증 등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회사로, 분사 이후에도 박스터는 박스엘타의 지분 24%를 보유해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
- 한편, 샐리어는 박스엘타가 독립한 7월 초부터 인수를 제시 했지만 박스엘타가 인수 협상을 거부하는 상황

### 2) 일본 토요타, 엔저로 2Q 순익 사상최대

- 지난 4일 토요타는 지난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% 증가한 6천4백63억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힘
  -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6천1백71억엔을 상회한 수치
- 매출액은 같은 기간 9% 증가한 6조9천9백억엔을 기록, 이 역시 예상치인 6조8천2백억엔을 상회

- o 토요타는 엔저와 더불어 북미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 호조로 실적을 크게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
  - 엔/달러 환율은 4월-6월 평균 1백21엔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엔 가량 상승
- o 한편, 엔저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은 개선됐고 엔화로 환산한 해외 자회사의 수익이 증가